

“생사경계서 불법 전하는 것,

임종앞둔 환자들 돌보는 환희호스피스봉사단



환희호스피스봉사단은 ...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으로 국민보건복지 향상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99년 7월 불교보건복지대학봉사단으로 창단됐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1년 불심봉사단으로 개명했다가 2004년 환희호스피스봉사단으로 안착했다. 부산에 있는 유수 병원들과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으며 현재 2009년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에 부산환희지부로 정식 등록했다. 환희불교복지대학에서 3개월간의 이론교육, 6개월간의 실습봉사를 거친후 입단할 수 있으며 현재 4백여명의 회원들이 활동중이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삶의 마지막 모습은 어느 누구도 감지 못한다. 다음 생을 준비하며 편안하게 숨을 거두는 사람부터 남겨진 가족들 걱정엔 눈을 감지 못하는 이, 죽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애 미련을 갖는 이,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떠올리며 분노에 울부짖는 이들까지 모두가 제각각이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낯설며 어려운 일일 터. 이는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죽음을 앞세우고 누구보다 의지처가 필요한 이들의 손을 잡아 주는 사람들이 있다. 환희호스피스봉사단(단장 신미래)이다.

환희봉사단은 부산 관음사(주지 현) 환희불교복지대학을 졸업한 봉사자들로 이루어졌다. 1999년 불교보건복지대학봉사단으로 창단했을 당시만 해도 3명의 호스피스 봉사자가 있었지만 현재 부산 시내 각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는 4백여명에 달한다. 그동안 거쳐간 사람만도 1460명. 이들은 동아대 병원, 부산대 병원, 보훈병원, 부산의료원, 환희요양원 등 각지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펼치고 있다.

3월 13일 환희봉사단을 만나기 위해 관음사 내에 위치한 환희요양원을 찾았다.

“아유 할머니. 왜 눈만 꼭 감고 밥을 안 먹는다 하실까. 우리 할머니 어디 편찮으셔서?”

치매로 몸이 불편한 할머니가 식사를 도와주는 봉사자에게 짜증을 부리고 있었다. 얼굴에 묻은 음식물을 닦아주며 할머니를 다독이길 수차례. 웃으며 할머니를 어루만지는 봉사자 손길에 마음이 누그러

졌는지 결국 할머니도 마주 미소를 지으며 수저를 집어 들었다.

55명 어르신들의 식사가 끝나자 봉사단원들은 어르신들과 함께 흥겹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귀에 익숙한 트로트 가락이 흐르자 어찌쯤을 들썩이는 어르신들 얼굴위로 웃음이 가득했다. 그 순간만큼은 행복이 어디 따로 있을까 싶었다.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많이 느껴졌다. 봉사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분들이 어르신들께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것이다.

뿌리깊은 거부감... 문전박대는 예상일

사실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병실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아무래도 호스피스 성격상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환자들과 가족들은 봉사단이 다가오면 어서 죽으라는 말이나 면서적의 표하고 꺼려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돌아갈 수는 없는 일. 마지막 길을 편안히 가도록 도와준다는 데 호스피스 의미가 있기에 단혀버린 환자와 가족의 마음 문을 먼저 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해가 되죠. 죽는 걸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자주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인생을 지혜롭게 정리해야 한다는 등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겠어요? 짜증나고 화가 나겠죠. 저 같아도 그분들처럼 반응했을 거예요. 그래도 말이죠. 조금씩 다가가서 그분들이 원함과 좌절 속에 삶을 맺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안아주고 등을 쓸어주고 발도 만져주면서 혼자라는 느낌이 없도록, 홀로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지

속적으로 다독여줘야 해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말이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김혜숙 봉사자(64·환희봉사단 15기)는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호스피스 봉사가 시작 된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들의 역할은 사람들의 마무리를 돕는 것”이라며 “생로병사의 과정 중에 죽음은 다음 생과 연결되어 있기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 모르다”고도 덧붙였다.

환희봉사단은 요양원에서 매일같이 볼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팀별로 봉사날짜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는 것. 규율을 정해놓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늘 누군가는 요양원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단원들은 봉사에 대한 열의가 남다르다.

봉사단은 호스피스 활동 뿐 아니라 환자들의 식사를 돕기도 하고 말벗이 되는가 하면 설거지, 목욕봉사까지 척척 해낸다. 체력적으로 힘들어 봉사자 모집이 어렵다는 목욕봉사를 10년 간 해온 팀도 있을 정도다. 이외에도 병원안내와 물품 정리, 약재실 봉사까지 도맡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생일을 맞은 환우에게는 축하잔치를 열어 환자들을 기쁘게 해주기도 하고 지역 복지관에서는 저소득층 지역민들에게 나눠줄 반찬도 만든다. 환희봉사단 13기는 현재 부산 용두산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병원 일을 털어주기도 하지만 무겁고 처지기 쉬운 병원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때문에 병원 직원들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환영받기 마련. 이혜미 환희노인요양원 복지국장은 “봉사자들 덕분에 어르신들이 지내기 더욱 좋은 곳이 됐다”고 말

했다. 생신축하잔치를 할때면 봉사단은 한복을 입고 고전무용을 추며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을 선보인다. 100세를 넘긴 할머니도 그때는 흥에 겨워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춤을 춘다.

“따뜻하게 환자들을 안아주는 봉사단원들의 얼굴은 환희 그 자체죠. 특히 봉사단이 어르신들을 위해 열정을 해줄 때는 어르신들이 아주 고마워합니다. 평소 외시던 다리나경을 따라하며 편안히 저녁잠에 드는 할머니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죠.”

이혜미 국장은 환희봉사단이 환자들을 돌보는 전문적인 모습에 감탄하게 되는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고 했다.

그도 그렇것이 환희봉사단은 환희불교복지대학 재학시에 간호학과 교수들과 물리치료사, 복지센터장들에게 임종간호, 경락이론 및 실습, 심신이완요법,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노인 복지 등 전문화된 교육을 3개월 간 받는다. 이어 졸업 후에는 6개월 동안 목욕봉사 실습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봉사단 자격이 주어진다. 아무래도 일반인들로서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들과 만나는 일이 드문 탓에 목욕봉사를 통해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환자들의 몸 상태에 대해 면밀히 알아야 그들을 조심스레 배려할 수 있는 습관이 배기 때문이다.

언제나 환자 편에서 지혜로운 마무리 도와

죽음을 맞는 환자들에게는 제각각 사연이 있기 마련. 봉사자들은 병상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그들을 돌

죽음 앞둔 이들에게 의지처 되자

환희봉사단 설립... 1999년 당시 3명

9개월 전문교육... 호스피스, 염불봉사 등

현재 4백여 명 활동, 그동안 1,460명 거쳐가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

외로움·원망 속에서 삶 마무리 앞두고

환자 배려 최우선... 생명 존귀함 일깨워

는다.

환희봉사단 오문옥(60·환희봉사단 14기)씨는 부산의료원에서 말기 암환자들을 위해 11년간 호스피스 봉사를 하며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을 앓고 있는 중년 여성을 만났다. 그녀에게는 대학생, 고등학생의 두 자녀가 있었다. 가정을 돌보지 않던 남편 때문에 별거를 선택하고 굳건히 살아왔던 남편까지 없이 전이돼 버렸다. 그녀는 병마에 대한 고통보다 남겨질 아이들이 더 걱정이었다. 오문옥 씨는 그녀에게 “아이들은 다 컸다.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남겨질 아이들에게는 저마다 자기 삶의 몫이 남겨져 있으니 너무 걱정마라”며 등을 쓰다듬었다.

“애들 이모도 있고 우리도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걱정마세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만 남기고 암으로 떠난 엄마도 있어요. 그에 비하면 대학생 자녀는 다 큰거죠.”

오 씨는 그녀를 이렇게 다독여왔다. 재산이 남편에게 돌아갈까 걱정하던 그녀를 위해 오 씨는 직접 환자를 데리고 동사무소에 가 재산을 아이들 이모 앞으로 변경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오 씨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며 편안히 눈을 감았다. 슬픔도 잠시, 오 씨는 그녀가 통도사에서 49재를 부탁했던 것을 기억하고는 본인 사재를 털면서까지 그녀와 한 마지막 약속을 지켰다. 환자의 언니와는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있다. 아이들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 남겨진 아이들도 간간히 들려다보면서 말이다.

이처럼 호스피스 활동은 단순히 환자를 정서적으로 위로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는다. 봉사자들은 환자가 차분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가족들에게 조심스레 조언하기도 한다. 봉사 경험이 쌓이다 보면 환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환자 성향만 봐도 알 수 있다. 평소 차분하고

Since 1994

마하연투어

문의처 : 02)365-7747 대표 정정행 두손모음

www.mahayeon.com

출발 : 인천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문의주세요

대만 “공승제” 5일 출발일 9월2일 요금문의

워동 웨리 태향산 완전일주6일 《행사가능》
출발 매주 목,토요일 요금문의

①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 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②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③ 맞춤 순례 운영 *불교행사*

④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⑤ 호텔, 행사일정, 식사 타사비교 필수

집중모객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 **죽**

| | | |
|-------------------------|--------------|------|
| ▶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 6일 출발일 5월27일 | 요금문의 |
| ▶ [지장도량] 구화산/[관음도량] 보타산 | 6일 출발일 6월11일 | 요금문의 |
| ▶ [대한민국 영산] 북경/백두산 | 5일 출발일 6월17일 | 요금문의 |
|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 5일 출발일 6월24일 | 요금문의 |

◆ 라오스

- 라오스 6일 (베스트상품)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엔
- 라오스/베트남 7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엔
- ◆ 베트남/캄보디아
-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엠펙 6일
- ◆ 태국
- [태국] 방콕-아유타야-파타야 5일
- ◆ 대만/홍콩
- 대만5일 대만3대사찰 순례
-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 미얀마

- 양곤/바고/시리암 5일
- 양곤/바간/헤호 5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이티오7일
- ◆ 티베트/부탄
- 티베트 6일 성도-라싸-암드록추-간체-시가체
- 티베트 핵심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정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 네팔/부탄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코트

◆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항주/보타/낙가산 5일
- 상해/항주/구화산/보타산 6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 백두산 5일
- 웨리 크루즈(수륙대제 가능) ▶ 대동웨리, 화동웨리, 워동웨리
- 세계3대 트래킹명소 호도협 ▶ 곤명/호도협/용룡설산 6일

◆ 인도/네팔/스리랑카

- 인도 9일 델리-라즈기르-나란다-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
- 인도/네팔 10일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사라바스티-아그라
- 인도/네팔 15일
-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 스리랑카 완전일주 순례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라

세계 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 |
|---------------|---------------|
|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 미서부 일주탐방 9일 |
|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 미동부 일주탐방 9일 |

그것이 바로 환희의 삶”



환희봉사단은 간호학과 교수들과 물리치료사들에게 임종간호, 경락이론 및 실습, 심신인양요법 등 전문화된 교육을 받는다.



생일을 맞은 환우에게는 축하잔치를 열어 그들을 기쁘게 해준다.



2013년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창립 4주년 기념세미나에서는 봉사자들이 관련 경험담을 토대로 직접 극본을 쓰고 드라마를 선보였다.



따뜻하게 환자들을 안아주는 봉사단원들의 얼굴이 환희 그 자체다.

깔끔한 성격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싫어하는 환자의 가족에게는 임종때만이라도 1인실로 옮길 것을 권유한다. 시끄러운 6인실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리라는 판단에서다. 환자 성향을 고려하지 못해 불편하게 삶을 마감하는 이들을 수차례 보아온 탓이다.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 사실 임종 준비에 익숙한 이가 어디 많겠는가. 환자들도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남은 가족들도 대부분 준비가 안 돼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다. 누군가를 떠나보낼 가족들에게 봉사단원들의 지혜로운 조언은 큰 힘이 된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 내 삶 돌아보게 돼
죽음을 매일 앞에 두고 있다면 삶에 대해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 환희봉사단원들 역시 죽음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되새기므로 삶을 알차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보훈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명숙(55·환희봉사단 15기) 씨는 호스피스 활동을 통해 인생에서 무엇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병원에서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처음부터 그들의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돈이 많았던 남편은 무슨 일을 해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자녀가 잘못을 저지릴 때도 마냥가진다고 들었어요. 교육관 차이가 많이 다했더라고요. 그런데 외동아이가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 뒤로는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며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이 병에 걸려 임원하게 됐고요. 두 분을 어렵게 화해시켜드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

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도 절실히 알게 됐죠.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는 일 말고 죽을 앞에서는 어떤 것도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스피스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환희봉사단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돕는다고 말했다. 봉사를 하면서 가족 관계가 더 화목해졌다는 이들은 물론 성격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이, 건강해졌다는 이들도 있다.

환희봉사단 신미라 단장(57·환희봉사단 87기)은 아이를 출산하던 중 겪은 의료사고로 인해 10년 동안 4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린다면 “만신창이가 되었을 정도”로 몸이 상했다. 오죽하면 매일 관속에 있는 꿈을 꿀 정도였을까. 아침에 겨우 일어나 가족들을 챙기고 나면 체력이 딸려 항상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픈 몸을 이끌고 관음사에서 예불을 드린 때가 있다.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이 그녀에게 봉사를 권했다. 아픈 몸으로 무슨 봉사냐며 가볍게 흘려들었는데 스님은 그럴 수록 더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단장은 이해가 안됐지만 일단 실천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모든 생명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원했다. 그렇게 조금씩 자신보다 더 아픈이를 챙겨가던 중, 신 단장은 비로소 스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다. 자신을 둘러싼 감정의 울타리를 없애고 몸과 마음도 건강해져 간 것이다.

사실 많은 봉사자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환희 불교복지대학에 들어온다는 것이 신 단장의 말이다. 우울감에 자

살을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는 생각에 자괴감 혹은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이들도 많다.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저희가 적극 권유하죠. 스님도 함께 참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마땅히 이곳을 찾아와요. 하지만 몇 개월만 지나면 사람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봉사를 하러 갈 때 우울한 얼굴로 갈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라도 웃게 되고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보살피면서 스스로 밝아지고 행복을 찾죠. 어떤 분은 봉사하면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당연히 봉사단원들은 그만 나오시라고 만류했지만 그분은 극구 봉사하러 오시더군요. 아파보니까 누워있는 환자들의 마음을 더욱 아낀 것 같더라고요. 진심으로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게 된거죠. 저희 봉사단원들은 모두 자신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현 스님은 교육과 봉사가 어우러져 많은 봉사단원들이 스스로 성장해간다고 말했다. “죽음을 앞두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위해 손발이 되고 눈과 귀가 되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이라고도 했다.

환희 봉사단, 그들의 봉사는 어둠을 밝히는 불빛이다. 봉사 시작하기 전에도 사람들의 뿌리깊은 거부감부터 어루만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을 뚫고 가만만하다고 했다. 그 산을 넘어야 죽을 너머의 참 진리를 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진리의 베풀. 그것이 그들의 목표다. 진리를 바탕으로 피어나는 기쁨이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도 ‘환희’롭게 다가갈 길 기도하면서, 부산=하성미 기자

전법일기

신도들과 쌓은 미운정 고운정

내가 법당을 박차고 나간 이유

사찰 초하루 법회는 불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신행활동이다. 매월 초하루 날 불보살님과 호법선신들께 예불공양을 드리며 한 달을 잘 열어가려는 신심의 발로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사실 강원 졸업하고 사찰 소임만 살았지 주지로서 신도들에게 법문 할 인연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법문을 하며 조금 주지로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 않다.

초하루 법회 며칠 전부터 신도들에게 좋은 법문을 하고자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며, 불교 관련 재미있는 이야기나 설화 등을 찾다가 인터넷 검색도 한 다. 법문 후에는 ‘내가 잘 법회를 진행했는가’를 항상 되짚어 본다.

그래도 가끔은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용해졌다. 나름대로 준비한 법문도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을 나갔다. 물론 마음은 편치 않았다. 종무소에 와 앉으면서도 온갖 상념이 들었다. ‘나이드신 분들인데 내가 너무 심하게 대한 것이 아닐까’, ‘수행자라면서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다니’, ‘앞으로 신도님들 얼굴을 어떻게 보나’ 등등.

결국 그 자리에서 앉아 목이 메일 정도로 염불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도들이 내 방문을 두드리며 연신 ‘주지 스님’을 찾았다. 나는 잠긴 목소리로 ‘네’라고 말했다. 목소리에 놀란 신도들이 ‘까르르’ 웃었다. 그러면서 ‘오늘 불자로서 어긋난 행동을 해서 참회하고자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러니 저러니해도 순수한 분



그림·박구원

가 있다. 바로 사찰 예절에 대한 문제다. 여는 사찰과 다름없이 원각사 절에도 법회 날이면 연세가 많은 노보살들이 법당 안을 가득 메운다. 언제부턴가 나는 법회에 앞서 신도들에게 사정을 한다.

“법당 안에서는 핸드폰은 진동 모드로 해주시고요. 기도 중이니 옆 신도들과는 너무 큰 목소리로 말씀하지마세요. 해우소에 갈 일이 있으면 조용히 다녀주세요.”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서 인지 깜박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다. 지난해 11월 초하루도 여느 때와 같이 신중기도를 마치고 법문을 시작했다. 현대 법문 시작 5분이 되지 않아서 신도들의 수다와 핸드폰 벨소리가 법당을 메우기 시작했다. 한 달만에 만나는 지인이 반가워서인지 법문보다는 수다가 먼저다. ‘염불보다 잣밥’이라는 속담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다.

그래도 법문에 경청해주시는 일부 신도가 있어 법문을 이어갔다. 하지만 10분 정도 지나니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다. 결국 나는 역정을 내고 말했다.

“신도님들 오늘 사찰에 왜 오셨나요. 주지가 법상에서 법문을 하는데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순간 법당 안은 찬물을 뿌린 것처럼 조

들이었다. 모든 감정이 녹아내리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다.

이런 일이 있고나서 신도들과는 더욱 친밀해졌다. 이제는 신도들이 나에게 원각사에서 평생 같이 살자고 먼저 제안한다. 멋쩍게 웃어넘기지만 나 역시 원각사 신도들과 정이 많이 들었다. 이는 서로간의 신뢰와 믿음이 쌓여가고 있는 증거일 것이다.

신도들에게 있어 사찰은 친정이고 외가이다. 나 역시 신도들에게 친정 오빠, 동생,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법회가 있는 날이면 비가와도, 눈이 내려도 항상 나는 원각사 일주면 앞에서 있다. 법회에 동참 하고자 멀리서 가까이서 오신 신도님들을 웃는 얼굴로 맞이하기 위해서다. 조금 주지인 나의 첫 신도님들은 한 분 한 분 모두 다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서로에게 의지하는 공동체. 그것이 내가 그리는 원각사의 미래다. 모두 모두 참 좋은 인연이다.



연호 스님 (서울 원각사 주지)

불교용품 전문·고급 연등·봉축 현수막

▶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 봉축리본

▶ 종이등표

▶ 지하철현수막

▶ 어깨띠

▶ 봉축현수막

▶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연꽃차걸이

▶ 고급 칼라연등 : 진분홍, 연분홍, 보라, 다홍, 오렌지 8cm

▶ 종이주름등

▶ 세로거치형 현수막

▶ 설화등 : 다홍, 연분홍, 진분홍, 오렌지, 보라 8cm

▶ 가야 공단등 : 연분홍, 오렌지, 진분홍, 다홍, 보라 8cm

▶ 비닐만일등

*** 공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 황금등** : 8cm

*** 자비연등** : 8cm

2015 연등 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불교장엄용품전문 **가 기 획**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